

MOV

제도 권력과 문화 권력의 결투

이성욱 | 씨네21 기자

두말 할 것도 없이 영화의 힘은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제도 권력이 상상력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방자하게도' 상상력이 제도 권력의 코앞에서 '건방'을 떨고 물신화되다시피 한 제도 권력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화 안팎에서 제도 권력과 (개인의) 상상력이 격렬하고 미묘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결국 제도 권력과 문화 권력의 한판 결투가 될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영화계의 2005년은 제도 권력과 상상력과의 정면 충돌로 심상치 않은 내상을 입으며 시작됐고, 쉽사리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가 되고 있다. 두 가지 사건이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어 국내외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힌 것으로 여겨졌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뜻밖의 역풍을 맞고 있고,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이 법원의 조건부 상영결정에 따라 일부 장면이 삭제된 채 극장에 걸리게 되면서 과연 이 영화계 바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영화계의 합심으로 일궈낸 국제영화제가 한쪽의 어이없는 '배반'으로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고, 후자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돼온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받게 된 현실을 보여준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영화의 힘은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제도 권력이 상상력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방자하게도' 상상력이 제도 권력의 코앞에서 '건방'을 떨고 물신화되다시피 한 제도 권력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보고, 현실이 아닌 2월 설 개봉 영화 속으로 들어가 현재의 한국영화가 권력에 싸움거는 방식을 읽어본다.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뿌리째 흔들리는 역풍 맞아

부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05년을 이틀 앞두고 조직위원장인 홍건표 부천시장(한나라당)의 발의에 따라 김홍준 집행위원장을 해촉했다.

부천영화제의 탄생 때부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판타스틱영화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 세계적인 영화제로 부각시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김홍준 집행위원장을 강제로 퇴진시킨 것이다. 표

면적인 이유는 '김 위원장이 9월 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으로 부임한 탓에 영화계에 집중할 수 없어 부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발돋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르다.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등 몇몇 영화인 단체 대표들이 흥 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진짜 사유가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지난해 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보면서 김홍준 집행위원장이 시장 본인인 조직위원장의 이름을 소개하는 걸 잊는 등 이름을 빼먹는 실수가 세 번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촉안을 다루는 총회에서는 영화계 안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영화인협회 신우철 회장이 "간단히 말해 패 썸죄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흥 시장은 부친영화제의 출범과 무관한 민선 시장이다. 이런 식이라면 부산, 전주, 광주 등 지자체와 손 잡고 영화제를 열고 있는 다른 국제영화제도 시장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그의 취향과 관심이 무엇인지 서둘러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야 생존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기막힌 논리가 생겨날 수 있다.

현재 부친영화제는 영화계의 대대적인 반발과 조직위의 지속적인 영화제 흔들기가 정면으로 충돌해 실체가 사라지고 있다.

조직위가 새로 임명한 집행위원장이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고, 프로그래머 등 영화제의 핵심 실무가 줄줄이 쫓겨났다. 또 박찬욱, 허진호, 김지운, 봉준호 등 감독과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 이영애, 정우성, 조승우, 권상우, 문근



영, 손예진, 강동원, 류승범, 신하균, 유지태, 강혜정, 김혜수 등 배우들은 영화제 출품과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해외 영화제도 부친을 보이콧하겠다고 속속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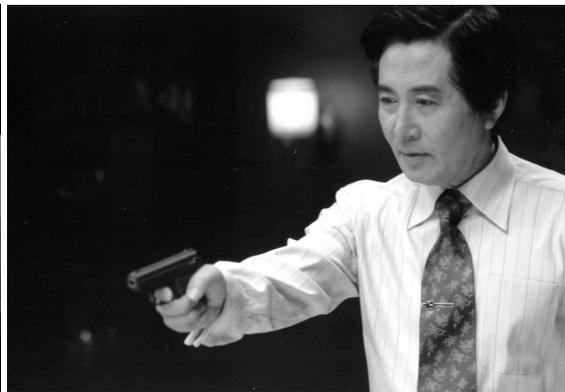
문제는 영화제의 미래다. 조직위는 영화계의 거센 반발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스태프를 꾸려 행사를 차질 없이 꾸리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영화제가 얼마나 내실 있게 열릴지 의문이다.

영화계 일각에선 굳이 부친과 영화제를 같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뜻이 맞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내실과 영화계의 지지를 두루 갖춘 판타스틱영화제를 새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논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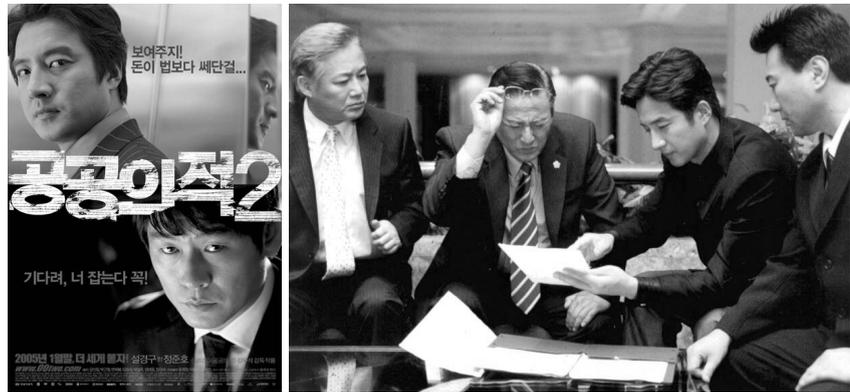
「그때 그 사람들」 일부 삭제된 채 상영

10·26 사건을 다룬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이 개봉도 되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과란이 일기 시작했다.

박씨가 미리 시나리오를 구해서 읽어보고 낸 소송이 유는 세 가지다. 박 전 대통령을 사생활이 문란하고, 일



설에 개봉한 「공공의 적 2」와 「그때 그 사람들」은 한국영화의 상상력이 권력에 어떤 방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지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다. 「공공의 적 2」는 검찰이라는 공공의 힘으로 부조리한 정·재·사학의 이해사슬을 깨부수는 데서 카타르시스를 생산한다. 반면 「그때 그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스러져간 권력 내부의 개인을 조명한다.



명예훼손이나 아니냐가 애초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법원의 삭제 명령에 따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논란이 또 하나의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여기에는 영화계 바깥에서도 들고 일어섰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본을 동경하는 매국적 인물이며, 김재규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왜곡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갖가지 실존 인물과 사건을 영화화하고 있는 영화계에 긴박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이나 외설 등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마찰을 빚은 적은 많지만 명예훼손과 부당친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개봉을 채 일주일 남기 전에 나온 법원의 결정은 영화계에 자못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3분 50초간의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하라는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삭제 명령을 내린 곳은 영화 도입부와 마지막 장면으로 기존 자료화면을 사용한 부분이다. 도입부는 1979년 말에 벌어진 부마항쟁, YH무역 여성노동자 농성사건 등을 찍은 사진을 스틸로 연결하고 여기에 가수 김윤아의 내레이션을 넣은 곳이다. 마지막 장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을 찍은 자료화면이다. "여기 주님 앞에 인간 박정희가 놓여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에 이어 박근혜 씨, 최규하 전 총리 등 당시 각료들의 모습과 길가에 늘어선 시민들이 통곡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나온다.

이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정일, 마광수, 이현세 같은 창작자들의 과거 사례처럼 이번 결정은 창작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인터넷 정치페러디가 일상화된 현 사회에서 이러한 판결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국영화감독협회 이민용 부회장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나라에서 가장 큰 비상사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도 강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에 의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은 법 논리적으로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 이는 일반 시민이 예술창작물의 내용을 향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기능은 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가위질에 악몽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 의해 재현됐다는 데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도 권력과 상상력의 미묘한 대결

설에 개봉한 「공공의 적 2」와 「그때 그 사람들」은 한국영화의 상상력이 권력에 어떤 방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지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다.

「공공의 적 2」는 검찰이라는 공공의 힘으로 부조리

한 정·재·사학의 이해사슬을 깨부수는 데서 카타르시스를 생산한다. 이진 1편과 아주 다른 구도다. 전편에서 강철중(설경구)은 강력반 형사이지만 부패의 먹이사슬에 한 발을 길게 걸쳐놓은 막가과였다. 앞뒤 재지 않는 그의 좌충우돌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아(금융계 엘리트)를 만나 분노를 터뜨리며 관객의 공분을 자아냈다.

그 힘으로 강철중은 공권력 행사를 잠시 미뤄두고 개인의 주먹으로 패륜아를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는다. 거대한 힘에 맞서는 방식으로 그 만큼 강한 물리적 힘을 내세웠다는 점이나 힘 대 힘의 대결에서 한쪽이 말살되어야 할 존재로 그려지는 건 1, 2편이 같지만 2편은 훨씬 이데올로기적이다.

강철중 개인의 주먹이라기보다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을 이상적인 도구로 그려내기 때문이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 반장이었던 강철중은 중학생 때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며, 고등학교 때 세상에 다른 출발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른이 됐다. 학교 패싸움을 주도했지만 정작 특혜를 받고 차별에서 빠지는 이사장 아들을 보면서 철중은 세상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철중은 검사가 된다.

「공공의 적 2」가 정성껏 묘사하는 대목은 검사들의 상명하복 체계다. 거기서 '사나이' 들의 눈물과 한계와 의리가 드러나며 이 마초들의 세계가 검찰의 힘으로 치환돼 자신들을 희롱하던 적을 쓸어버린다. 공공의 적을 퇴치하는 물리적 도구로 국가조직이 이상화되는 순간, 관객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연출된다. 검찰이 바람직한 국가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 된 셈이다.

반면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를 제왕의 권좌에서 끌어내리되 그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이상화시키지도 않는다. 다만 그 권력에 의해 스

러저간 권력 내부의 개인을 조명한다.

예컨대, 넓디넓은 광화문 거리를 중앙정보부의 주과장(한석규) 차가 홀로 질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중앙청 건물까지 시원하게 잡은 이 장면은 다분히 함축적이다. 김부장(백윤식)의 도박에 기꺼이 동참했던 일생일대의 모험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의 절박함과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던 개인의 처절한 마음 풍경이 먼저 다가온다. 큼직큼직하게 지어진 건축물(권력체계) 앞에선 초라한 개인이 아주 효과적으로 대비된다.

영화는 김부장과 한 배를 타야했던 주과장과 그의 부하들의 비극적 운명을 대비시키는 명쾌한 시선을 노출하지만 그들이 권력의 '개' 였던 건 부인하지 않는다. 채홍사 주과장은 각하를 수청 든 딸의 어머니(윤여정)에게 쌍욕을 해대며 뒷소문을 막고, 남산 지하취조실의 고문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김부장의 도박이 리스크가 높은 만큼 돌아올 대가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할 줄 안다.

영화는 비록 권력의 주구였을지언정 그들이 지닌 개인의 실존적 무게까지 삭제할 수 없는 건 아니냐고 말한다. 10 26에 정면으로 다가서되 '국부'에 맞서는 무기로 '개인'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신호등을 건너야 하는지 마는지, 버스를 타야 하는지 마는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풍경으로 부조리를 고발하는 방식이다. 이점이 권력을 다른 권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언하는 「공공의 적 2」와 갈라서는 지점이다.

이렇게 영화 안팎에서 제도 권력과 (개인의) 상상력이 격렬하고 미묘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결국 제도 권력과 문화 권력의 한판 결투가 될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